KB Macro

미-영 무역협상이 한국에 주는 함의

KB증권

Economist 류진이
jinleecon@kbfg.com
연구원 김세영
seyeong.kim@kbfg.com

경제분석

2025년 6월 27일

더 많은 리포트 보기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협상 진행되며 유예 기간 재차 연장될 전망

오는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이란 사태가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든 이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재차 부각되고 있다. 백악관의 미란 무역위원장과 베센트 재무장관 등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어 7월 8일 이후 상호관세가 부과되기보다 협상을 지속하며 유예는 재차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잇달아 예상치를 하회해 협상에 임하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어진 상황이다.

유일하게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한 영국

아직까지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성공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며, 미국이 영국을 대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여타 주요국 대비 협상이 빠르게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미-영 무역협상의 주요 내용은 (1) 기본관세 10% 부과, (2) 영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관세(2.5%+25%)에 대해서 10만대까지 10%로 하향 조정 (영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대수는 연간 10만대를 하회), (3) 영국산 항공우주 수출품 기본관세 면제, (4)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유지다. 대신 영국은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사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하는 한편, 미국산 소고기와 에탄올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각각에 수입 쿼터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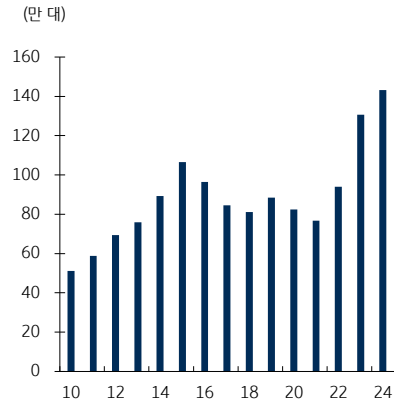
한국에의 적용: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중국 우회 수출 통제가 핵심. 관세와 쿼터제 병용 가능성

영국과의 협상 내용을 한국에 적용해보면, 25%의 상호관세율은 10% 기본관세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으나 품목별 관세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은 국방비 증액,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소고기 월령 제한 및 가공육 수입 금지 폐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기타 비관세장벽 완화 (망 사용료 법안 제지, 위치정보 국외반출 제한 해제 등)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영 협상에서 나타나는 미국 정부의 핵심 포인트는 (1) 기본관세 부과, (2) 철강 및 자동차 등 미국 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에 대해서 해외 기업의 점유율 확대 경계 (고율 관세 or 쿼터제 도입), (3) 중국의 우회 수출 통제다. 중국의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낮은 산업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를 도입해 점유율 통제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관세 대신 쿼터' 접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차 부품에서 쿼터 방식으로의 전환이 검토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쿼터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지난 1기 때도 한-미 협상을 통해 철강에 대해 25% 관세 대신 쿼터제 (연 263만톤 무관세+미국 내 수급 어려운 철강 품목은 별도 허가)를 도입한 바 있으며, 세탁기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경험이 있다. 다만 영국에 대한 자동차 쿼터제 도입 이후 미국 자동차업계의 일부 반발이 있었고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영국 대비 크게 높은 만큼 영국보다는 좀 더 타이트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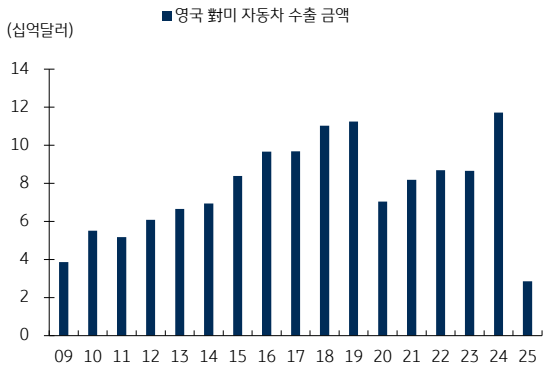
미-영 협상에서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를 도입한 반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유지한 것은, 철강 산업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와 함께 영국의 두 주요 철강 제조업체인 중국계 브리티시스틸과 인도계 타타그룹을 통해 중국과 인도산 철강이 영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한국 정부도 중국의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미국 정부에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관건이다.

한국의 對미 자동차 판매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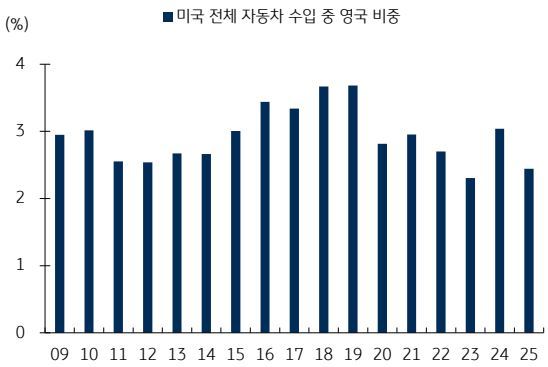
자료: CEIC, KAMA, KB증권

그림 1. 영국 對미 자동차 수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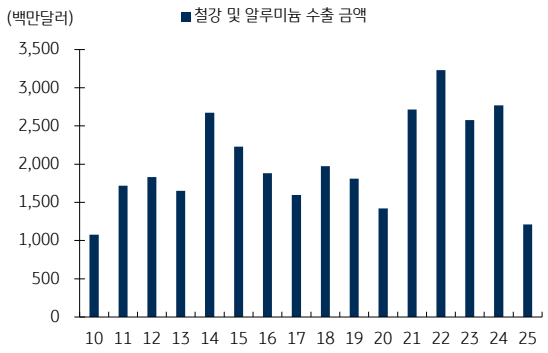
자료: CEIC, 영국 무역 통계정보, KB증권
주: 25년은 1~4월까지 누적 기준

그림 2. 미국 전체 자동차 수입 중 영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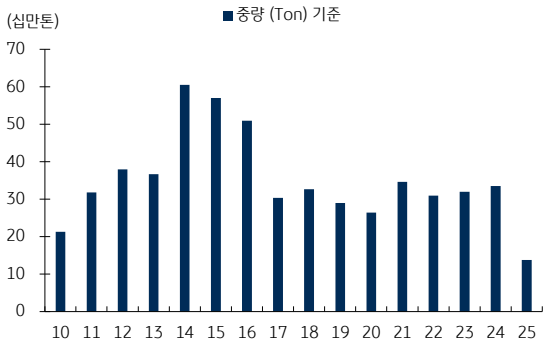
자료: CEIC, 영국 무역 통계정보, KB증권
주: 25년은 1~4월까지 누적 기준

그림 3. 한국의 對미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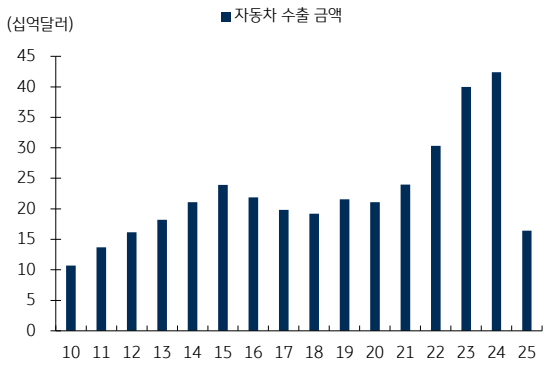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KB증권

그림 4. 한국의 對미 철강 및 철강 부품 수출 중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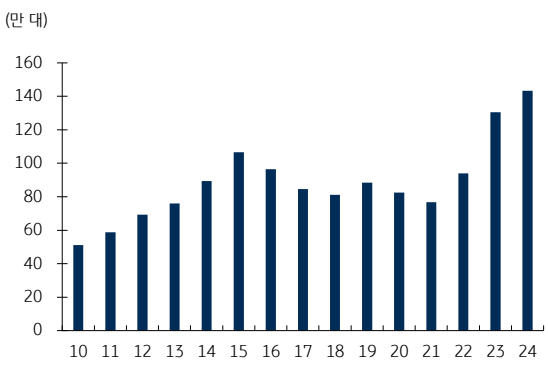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KB증권

그림 5. 한국의 對미 자동차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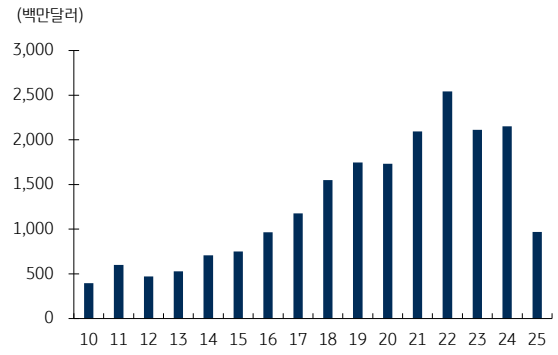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KB증권
주: HS2단위 기준

그림 6. 한국의 對미 자동차 판매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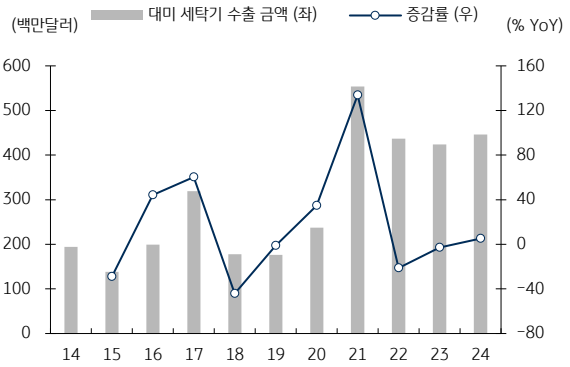
자료: CEIC, KAMA, KB증권

그림 7.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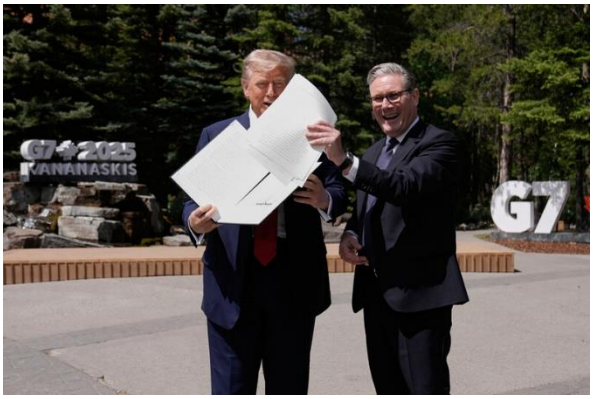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KB증권
주: HS 0201, 0201 기준

그림 8. 한국의 對미 세탁기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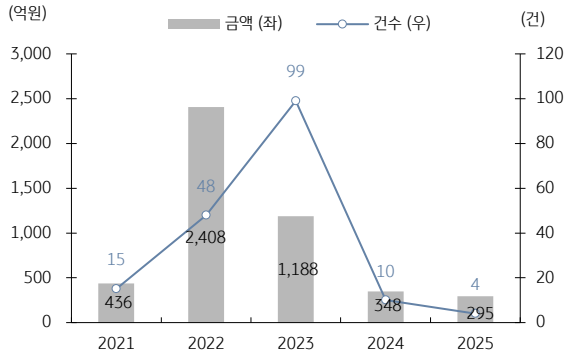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KB증권

그림 9. 미-영 무역합의 체결 후 트럼프 미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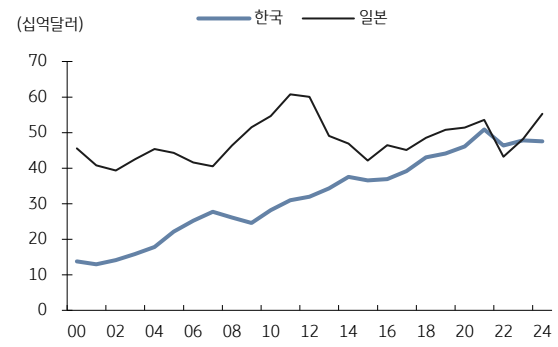
자료: 한겨레 '미-영 합의에 빠진 철강…관세 인하조건 더 까다로워졌나 (25.06.18)', KB증권

그림 10.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 수출 적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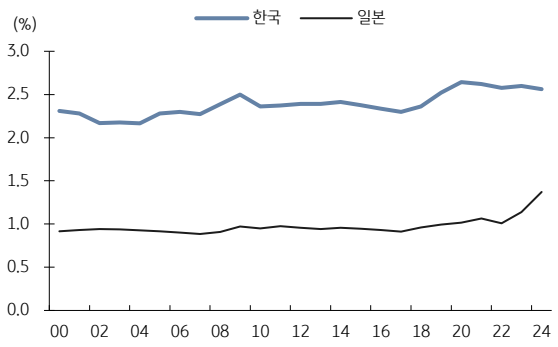
자료: 한국경제 '한국도 '中 우회수출' 안전지대 아니다 (25.05.06)' 재구성, KB증권

그림 11. 연간 국방 지출 금액



자료: SIPRI,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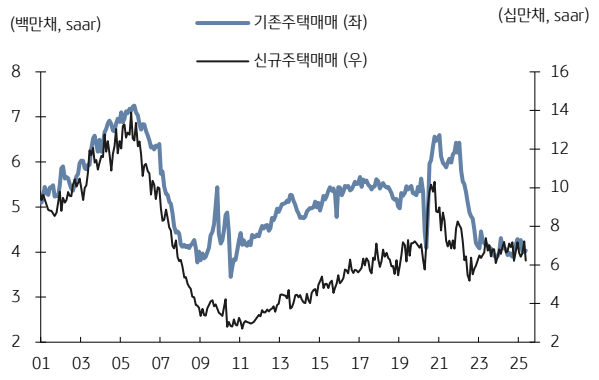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과 일본의 GDP 대비 국방지출 규모



자료: SIPRI, KB증권

3 Picks

미국: 부진한 주택 거래에 둔화하기 시작한 주택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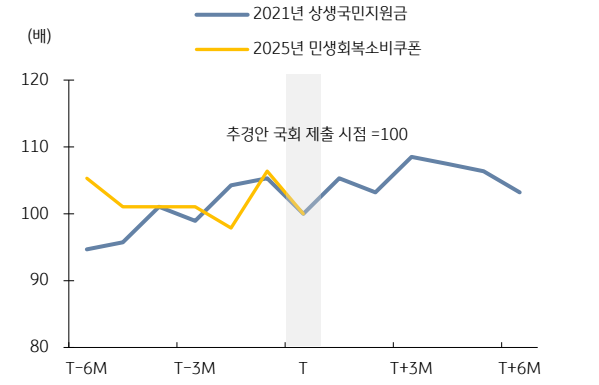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미국 상무부, KB증권

- 5월 미국 기존주택매매와 신규주택매매는 연율 환산 기준 각각 403만채와 62.3만채 거래되며 부진세를 이어갔다. 30년 모기지 고정금리가 연초 이후 6% 후반대에 머물고 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지며 주택 매수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주택 수요 둔화는 점차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Redfin에 따르면 5월에는 주요 50개 권역 중 32개 지역의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했고, 22년 7월 이후에 주택을 매수한 이들의 16.4%는 구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위험이 있다. 또한 연준이 집계하는 가계 부동산 자산 시장 가치는 25년 1분기에 47.9조 달러로 24년 2분기 48.8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어 미국 내 주택 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 모기지 금리와 위축된 가계 심리로 신규 주택 매수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당분간 주택 가격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월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의 소비 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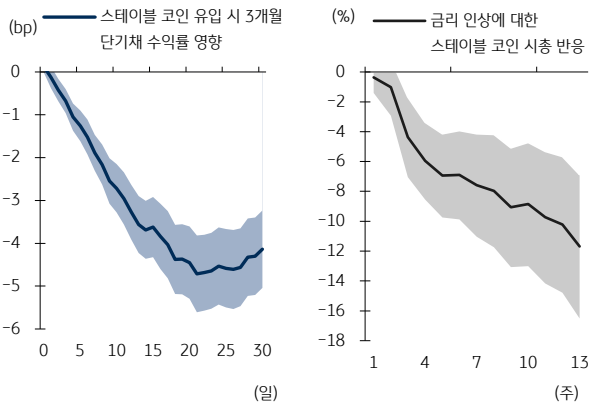


자료: CEIC, 통계청, KB증권

-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pt로 3개월 연속 개선된 가운데 지출 계획 항목도 4개월 연속 개선되며 24년 11월 수준을 넘어섰다. 다만 전 소득 구간 중 유일하게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소비지출 전망은 전월대비 감소했는데, 이번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경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지출 심리도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KDI에 따르면 21년 8~9월 지급했던 지원금의 지급 효과는 지급 금액 대비 19.2~ 36.8%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지급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 1인 가구 중 소득 하위 20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은 91%, 4인 가구는 48%로 각 구간의 전체 평균 (각 37%, 19%)을 크게 상회해 정부 지원금 지급에 따른 저소득 계층의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BIS



자료: CEIC, BIS, KB증권
주: 음영은 68% 신뢰구간

-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제결제은행 (BIS)은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시스템의 중심축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발행 주체별로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단일성),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는 선지급 방식은 유연한 공급이 어렵다는 점 (탄력성), 마지막으로 익명성으로 인한 규제 회피 가능성 (완결성)을 그 이유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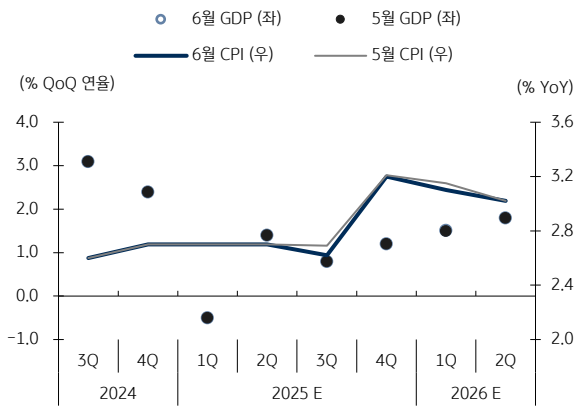
-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우려 요인으로 제시됐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35억 달러 유입될 경우 미국 단기채 수익률이 2.5~5.0bp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해 위험자산군과 비슷한 시총 반응을 보였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닌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국채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이 연계돼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글로벌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6/22 ~ 7/6)

날짜	국가	경제지표	단위	발표치	이전치	컨센서스
6/23	한국	6월 1~20일 수출	% YoY	8.3	-2.4	
	유로존	6월 HCOB 제조업 PMI	pt	49.4	49.4	49.7
	미국	6월 S&P 제조업 PMI	pt	52.0	52.0	51.0
	미국	5월 기존주택매매	백만 채 (연환산)	4.03	4.00	3.95
	미국	연준 월러 이사, 보우먼 이사 연설				
6/24	한국	6월 소비자심리지수	pt	108.7	101.8	
	한국	5월 소매판매	% YoY	7.0	7.0	
	유로존	ECB 레인 이사 연설				
	미국	4월 S&P 코어로직 CS 20개 도시 주택가격지수	% MoM / % YoY	-0.3 / 3.4	-0.2 / 4.1	-0.0 / 3.9
	미국	6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pt	93.0	98.4	99.8
	미국	연준 파월 의장 연설				
6/25	미국	5월 신규주택매매	만 건 (연환산)	62.3	72.2	69.3
	미국	5월 도매재고	% MoM	-0.3	0.1	0.2
6/26	미국	5월 내구재 주문	% MoM	16.4	-6.6	8.5
	미국	연준 바킨 리치몬드 총재, 하막 클리블랜드 총재 연설				
6/27	미국	5월 PCE 물가지수	% MoM / % YoY		0.1 / 2.1	0.1 / 2.3
	미국	연준 쿡 이사 연설				
6/30	한국	5월 광공업생산	% MoM / % YoY		-0.9 / 4.9	0.2 / 3.5
	중국	6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pt		49.5	49.7
	유로존	ECB 라가르드 총재 연설				
	미국	6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	pt		-15.3	-14.0
	미국	연준 굴스비 시카고 총재 연설				
7/1	한국	6월 수출	% YoY		-1.3	4.4
	한국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pt		47.7	
	중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pt		48.3	49.0
	유로존	6월 CPI	% MoM / % YoY		0.0 / 1.9	
	미국	6월 ISM 제조업지수	pt		48.5	48.8
	미국	5월 구인이직보고서 (JOLTs) 구인건수	만 건		739.1	
	글로벌	ECB 중앙은행 연례 포럼				
7/2	한국	6월 CPI	% MoM / % YoY		-0.1 / 1.9	
	미국	6월 ADP 민간 고용자수 변동	전월대비, 만 명		3.7	11.0
7/3	미국	6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	전월대비, 만 건		13.9	12.0
	미국	6월 실업률	%		4.2	4.3
	미국	연준 보스틱 애틀랜타 총재 연설				
7/4	유로존	5월 PPI	% MoM / % YoY		-2.2 / 0.7	

자료: Bloomberg, KB증권 정리
주: 현지 시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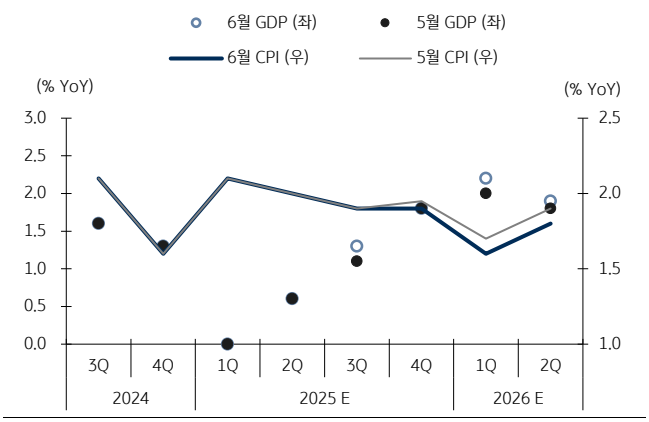
그림 13. 미국 GDP, CPI 컨센서스 변화



자료: Bloomberg, KB증권

주: 6월은 6/27, 5월은 5/2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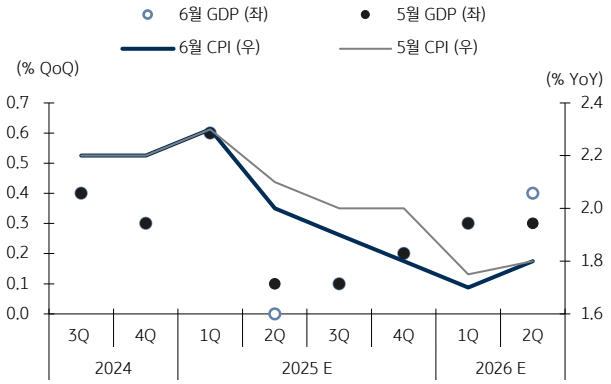
그림 14. 한국 GDP, CPI 컨센서스 변화



자료: Bloomberg, KB증권

주: 6월은 6/27, 5월은 5/2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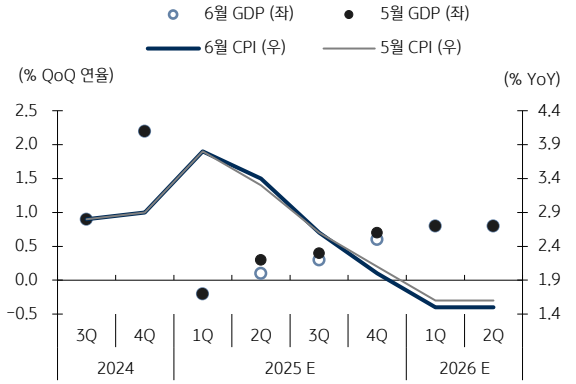
그림 15. 유로존 GDP, CPI 컨센서스 변화



자료: Bloomberg, KB증권

주: 6월은 6/27, 5월은 5/2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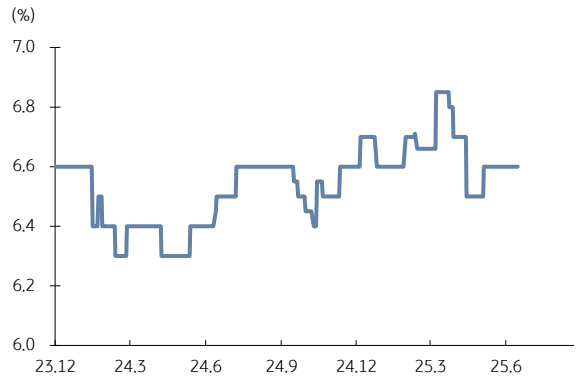
그림 16. 일본 GDP, CPI 컨센서스 변화



자료: Bloomberg,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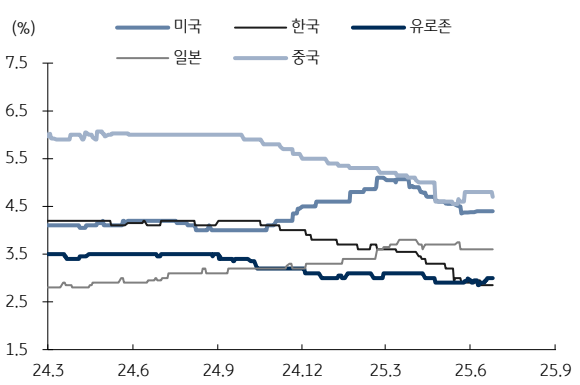
주: 6월은 6/27, 5월은 5/27 기준

그림 17. 글로벌 2025년 명목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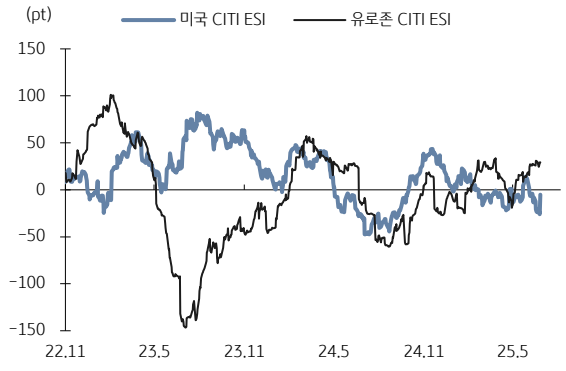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그림 18. 주요국 2025년 명목 성장률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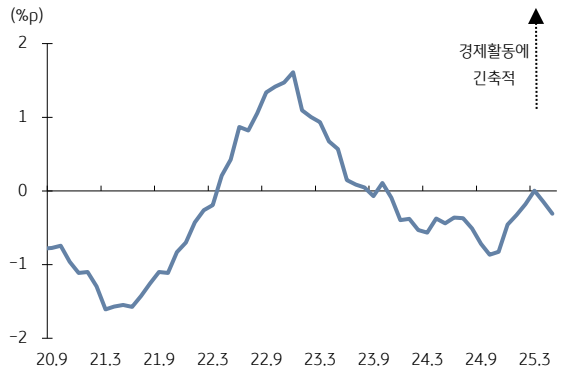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그림 19. 미국, 유로존 경기서프라이즈 지수



자료: Bloomberg, Citi group, KB증권

그림 20. 미국 금융환경지수 (FCI-G)



자료: Bloomberg, FRB, KB증권

주: FCI-G는 Financial Conditions Impulse on Growth로, 직전 3개월간 금융 환경 (연방기금금리 및 국채/회사채 금리, 주가지수 등) 변화가 향후 1년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표 2. 주요국 정책금리 변동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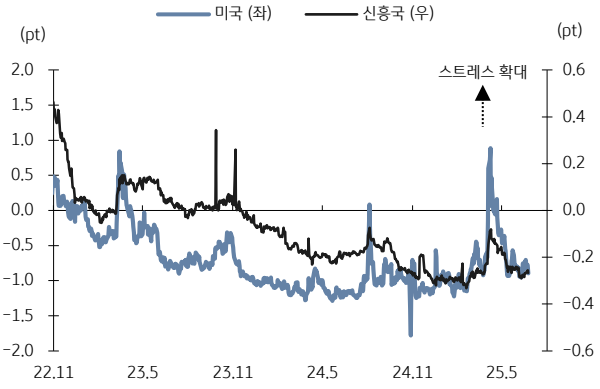
국가명	현재 정책 금리	직전 금리 결정 내용	직전 금리 결정일	다음 금리 결정 일정
미국	4.25~4.50	동결	6월 19일	7월 31일
중국	3.00	동결	6월 20일	7월 21일
유로존	2.15*	25bp 인하	6월 5일	7월 24일
한국	2.50	25bp 인하	5월 29일	7월 10일
일본	0.50	동결	6월 17일	7월 31일
캐나다	2.75	동결	6월 4일	7월 30일
호주	3.85	25bp 인하	5월 20일	7월 8일
인디아	5.50	50bp 인하	6월 6일	8월 6일
브라질	15.00	25bp 인상	6월 19일	7월 31일

자료: Bloomberg, KB증권

주1: 한국 시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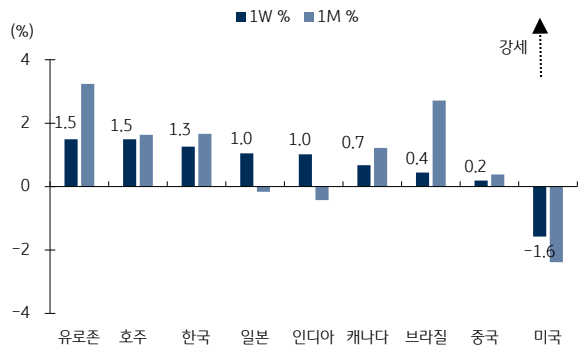
주2: 중국= 1년물 LPR, 유로존= ECB 재융자 금리, 일본= 정책금리잔고 적용 금리

그림 21. 금융 스트레스 지수 (OFR FSI)



자료: Bloomberg, OFR,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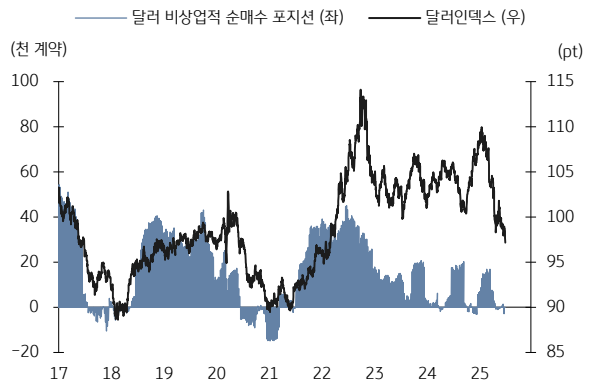
그림 22.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가치 변화율



자료: Bloomberg, KB증권

주: 6/27 기준, 달러화 대비, 미국은 DXY지수를 이용

그림 23. 달러 비상업적 순매수 포지션과 달러지수



자료: Bloomberg,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